

민주 전대를 '전준위 원안' 대부분 유지

비대위 수정안 철회

당 대표 여론조사 30% 반영

최고위원 '중앙위 100%'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물음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방안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방안을 버무려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권역별 투표 제도도 철회됐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안'(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우 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한 '권역별 투표 제도'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전대에 출마, 당권을 거머쥐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당 내 반발을 샀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에 반대해 사퇴의 뜻을 밝혔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이에 따라 당무위를 거쳐 '질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전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 30%를 포함하되,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비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15명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8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고, 변별력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 정당으로 확대하는 데 민주당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했지만,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당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일리 있는 것이 있어서 중장기 과제로 설계하자는 것이 표면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사퇴 뜻을 밝힌 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이 발휘돼 결과가 나왔으니 연락을 해 보겠다"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성의 있게 다시 전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가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박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다"며 "당무위에서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권역별 투표제 철회... 호남 최고위원 확보 비상

친명계 의원들 반발로 철회

권리당원 많은 호남 이점 사라져

6일 민주당 비상대책위가 최고위원 경선에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투표제'를 철회함에 따라 호남 최고위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권역별 투표제란 권리당원 한 명에게 주어지는 2표 가운데 1표를 자신의 출신 지역 후보에게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최고위원 주자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민주당 비대위가 하루 만에 권역별 투표제를 철회한 것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당 내부가 견장을 수 없이 커져서 서둘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는 지도부 구성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특정 계파 주자들이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권역별 대표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명계는 '권역별 투표제'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처림'을 비롯한 최고위원 주자 거론되는 친명계 국회의원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역별 투표제를 통해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사실상 '친명계 견제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비명(비 이재명)계 최고위원 주자들에게는 권역별 투표제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호남의 권리당원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호남 최고위원 주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기대됐다.

권역별 투표제가 철회됨에 따라, 호남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다. 호남 권리당원과 민심의 결집 없이는 호남 최고위원의 민주당 지도부 진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는 차기 총선 공천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거에 비해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심장으로 평가받았던 호남 민심도 팬덤과 계파 정치에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대에서 강력한 결집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며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 장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치러진 전대에서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호남 단일 최고위원 주자로 각각 나섰지만 별다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탈락,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17일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등록

7개 권역 순회하며 경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달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등록 신청은 17일부터 이틀간 받기로 했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예비경선 후보자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의 경우 15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원으로 하되 청년·원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 대표 후보의 기탁금이 최고위원 후보보다 많은 이유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만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예비경선 이후 내달 치러지는 본 경선은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어떤 순서로 순회를 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전당대회의 경우 대전·충북·부산·대구·강원·서울 순서로 합동연설회를 가진 바 있어, 이번에도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혁신위, 공천 다룰 '인재 소위' 등 3개 소위 구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6일 인재영입-지도체제·당원교육·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3개 소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각각 '인재를 키우는 정당 소위',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소위',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 소위'로, 지난 3일 3개 소위를 구성해 혁신 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내용을 포함한 인재육성과 관리, 교육훈련 등 당원 관리에 관한 것, 시스템 정비와 정책기준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등을 (기준으로) 갖고 소위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위의 여건을 보완·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

"사개특위 등 이견 좁히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45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의 차이가 있던 부분에 대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양당의 견해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언급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쟁점과 의제 위주로 말했다. 국회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며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남은 건 사실이지만, 의견 접근을 많이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좀 더 논의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원하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원 구성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서동욱 의원 선출

서동욱(순천 4·더불어민주당·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이 제 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서 의원은 6일 치러진 투표에서 61표 중 58표를, 함께 출마한 오미화(영광2·진보당) 의원은 3표를 얻었다.

서 신임 의장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 도민 권익 신장·북리 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인 서 의장은 도의회 4선 의원으로 9·10·11대의 의원을 거쳐 도의회 운영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김태균(광양3)·전경선(목포5) 의원이 뽑혔다. 전남도의회 는 또 의회운영위원장 차영수(강진)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순천 6)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목포 1)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이철(완도 1)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동현(보성 2) 의원, 농수산위원장 신의준(완도2) 의원, 교육위원장 조옥현(목포2) 의원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